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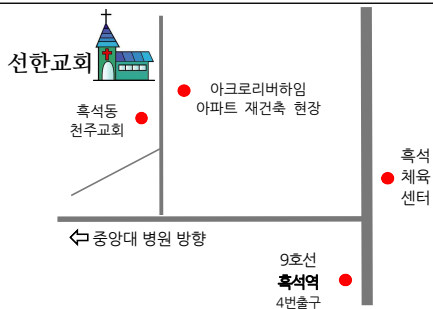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요기도회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42번(시편 98편)		
	찬 양 과 경 배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예	배	기	도	박희태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빌립보서 2:1~11	
	설		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손정환 심인섭 윤국로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어두운 시대의 레위인의 삶 (사사기 19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별 총 회	오늘 예배 후에 부서별 총회가 있습니다.	
2. 입 당 감 사 예 배	12월 10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입당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3. 인 사/예 결 산 위 원	인사위원 : 조윤익, 박희태, 박영근, 편도선, 손영삼, 방성자 예결산 위원 : 한배선, 김대희, 유신웅, 조계승, 이용재, 최영석	
4.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도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분당셀 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사사기 17장	사사기 18장	사사기 19장	사사기 20장	사사기 2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찬송 : ‘주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통 455장)

본문 : 창세기 45장 1~15절

말씀 :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는지 묻는 심리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알기 위해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내면의 상태에 따라 그림을 각기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같은 그림을 다르게 본다는 말은 그 그림을 어떻게 볼지 내 마음에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든지 마음에 결정된 대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과거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다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깊게 패였고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상처는 자칫 부정적이 될 수 있었던 그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대신이 됩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드라마틱한 인생역전을 이루어 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해석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사람과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고 모진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독’을 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긍정적 태도로 다시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분명 의미가 있고 아픈 사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2:1-11)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마음

- (1)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2절)
- (2)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3-4절)
- (3)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5-8절)

본론

2. 교훈

- (1)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자.
- (2)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자.
- (3)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자.

결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한배선 장로
헌 금 위 원		손정환 심인섭 윤국로	오세영 오주영 전희영
안 내		상도셀	분당셀

매일 성경 강독		무지와 타락의 시대		날짜 : 11월 27일	
찬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261장/통일 찬송가 195장)			
통독		사사기 17장			
본문 내용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또한 유다에서 온 한 레위 소년이 미가로부터 대가를 받고 신당이 있는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미가의 신상 숭배 (1) 본장부터 마지막장까지는 당시 백성들의 타락상이 묘사되고 있음 (2) 우상 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진 발단은 미가가 모친의 은전 1,100을 훔치며 시작됨 (3) 모친은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저주를 퍼붓고 이에 미가가 은전을 돌려주자 모친은 심히 기뻐하며 그 중 일부를 취하여 우상을 만듦 (4)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아들에게 입히고 자기 신당을 관리할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떠돌이 레위소년에게 은10과 의 복1벌,식물을 주기로 하고 자기 집의 정식 제사장으로 삼음 (5)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된다.			
핵심 단어		내가...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 이처럼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의 덫에서 풀어내기 위해 가증스러운 신상(神像)을 만들어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양 여겼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행위이며(롬 1:23).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가증스러운 범죄였다(롬1:23).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부패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힘”
찬양과 기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08장/통 28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여성 팝 가수 셀린 디옹(Celine Dion)이 어느 날 갑자기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음색을 지닌 셀린 디옹은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 휘트니 휴스턴(Whitney Elizabeth Houston)과 함께 1990년대 중후반 팝 시장을 삼분했던 ‘3대 디바’로 불립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고 테이프 하나를 들고 음반 회사의 문을 두드렸던 12살의 어린 자신을 받아 주고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매니저 르네 안젤릴(Rene Angelil) 때문입니다. 26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셀린 디옹과 르네 안젤릴은 결혼했고, 르네 안젤릴은 30년간 셀린 디옹의 매니저로 활동한 후 2013년에 후두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셀린 디옹은 자신의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 병간호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국 2016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암과 사투 중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던 셀린 디옹의 헌신적인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 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 나의 희생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아가 8:1~14	
묵상포인트	솔로몬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강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랑은 두 사람 사이를 가르려는 모든 방해 요소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사랑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성숙해 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 쫓값을 치르신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1~4절)	
적용하기	가슴 뛰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기억을 나누어 보세요. 연애했 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기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배워 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관계의 기초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왕이 없는 사람들의 혼돈된 삶	날짜 : 12월 1일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통일 찬송가 465장)		
통독	사사기 21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던 서원으로 인해 대성통곡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처녀 사백 인을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림몬에 피해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사백 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나 여전히 이백 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절기에 무도하기 위해 나오는 실로의 처녀를 유괴하도록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백성들의 후회와 베냐민 지파 회복 (1) 백성들은 전쟁을 끝낸 후 자신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이스라엘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을 세움 (2) 림몬 바위 근처에 피신한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야베스 길르앗을 응징할 때 사로잡은 400명의 처녀를 그들에게 주어 후사를 볼수 있도록 함 (3) 부족한 200명을 위해 여호와 절기에 훔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함 (4) 인간 스스로 자신의 불합리함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불합리를 초래하게 된다.		
핵심 단어	너희에게 죄가 없을 없을 것임이니라 -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딸을 납치당한 실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무죄성을 납득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가 있었을 것이다. (1) 길르앗 야베스와의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다 마련해 주지 못한 데 대한 이스라엘의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딸을 납치당한 것은 실로인들의 책임만 일 수 는 없다는 점이다. (2) 실로인들이 고의로 자신들의 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해 간 것이기 때문에 실로인들은 그들이 한 맹세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길 잃은 지파와 지도자	날짜 : 11월 28일
찬양	아 내 맘속에 (찬송가 411장/통일 찬송가 473장)		
통독	사사기 18장		
본문 내용	기업의 땅 분배를 얻지 못한 단 지파가 사람을 보내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레위 소년을 만나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라이스를 탐지하고 돌아가고, 단 지파 육백 명이 그 땅을 얻기 위해 출발합니다.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등을 탈취하고, 이를 저지하는 레위 소년에게 오히려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제안하자, 레위 소년은 단 지파와 함께 떠납니다. 탈취한 물품을 갖고 가는 단 지파를 미가와 그의 이웃집 사람들이 추격해서 만납니다. 부당함을 따지는 미가를 단 지파는 세력으로 눌러 돌려보냅니다. 단 자손들은 라이스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 단이란 이름을 붙이며 탈취해 온 신상과 제사장을 자신들을 위해 세웁니다.		
생각해보기			
1	단 지파의 이주 (1) 소라와 에스다울 부근을 기업으로 차지했던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강성함으로 대부분의 기업을 잃고 새롭게 거할 기업을 찾아 나섬 (2) 선발된 용사 5명이 라이스 땅에 이르러 그곳이 단 지파가 거하기에 적합한 것을 발견하고 소식 전함 (3) 보고 받은 단 지파는 다시 6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라이스 정복에 나섬 (4) 600명의 용사들은 라이스 정복에 앞서 일전에 5명이 머물렀던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 소년 제사장과 미가가 만든 신상을 탈취한 뒤 라이스를 정복하고 단 사람들을 이주시킨 후 그곳에 신상 세움 (5) 형식적인 신상(에배)과 제사장 제도가 축복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임		
핵심 단어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 단 사람들과 달리 이 레위 소년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간접적이거나 단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께 신탁을 구할 자격이 있는 합법적인 제사장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한편 여기서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주장하고 계시니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뜻이다. 공동 번역은 이를 '그들이 가는 길이 환히 트이도록 야훼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로 번역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통일 찬송가 460장)
통독	사사기 19장
본문 내용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이 취한 첩이 행음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첩을 찾은 레위 사람은 장인의 집에서 길을 떠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성읍 대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들어가나, 그들을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 비류들이 몰려와 그를 요구했습니다. 대신 레위 사람의 첩이 이끌려 나가게 되고, 그 첩은 학대를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레위 사람은 그 시체를 열두 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생각해보기	
1	타락한 레위인 가정 (1)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 아버지집으로 도망 감 (2) 남편이 장인 집에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는 길에 기브아 지역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다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여자를 능욕하여 죽게 함 (3) 남편은 첩의 시체를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냄 (4) 극도로 타락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위에 더욱 경건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자.
핵심 단어	그의 주인이 일찌기 일어나 -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이 비정한 레위인은 간밤에 당한 공포스런 일을 생각하며 일찌기 그 성읍을 떠나 위험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아내의 행방이나 생사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관심 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이 레위인에게는 그의 첩에 대한 육적인 사랑은 있었을지 모르나 진정한 사랑은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서 그의 장인이 계속해서 떠나려는 이 레위인 사위로 하여금 자기 집에 하루라도 더 묵도록 한 것도 아마 자기 딸에 대한 이 레위인 사위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위선과 거짓으로 시작된 총회		날짜 : 11월30일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통일 찬송가 507장)			
통독		사사기 20장			
본문 내용		첩의 시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전한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한 정황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각 지파는 백성의 심분의 일을 차출하여 베냐민의 기브아로 보내어 망령된 일에 대한 징계를 도모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악행의 원인이었던 비류들을 징계하길 원하는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이만 육천 명의 베냐민 자손과 칠백 명의 기브아 거민이 나아옵니다. 사십만 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은 첫날 유다 지파를 필두로 나아가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둘째 날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만 팔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베냐민 자손에게 패배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연약계가 있는 베엘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은 유인과 매복의 방법을 통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초반 승리에 도취하게 하고, 연기 구름을 신호로 광야 길에서 용사 일만 팔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림몬 바위에서 오천 명, 기돔에 이르러 이천 명을 죽였습니다. 베냐민 용사 육백 명만이 림몬 바위에 이르러 목숨을 건졌을 뿐, 베냐민 모든 성읍이 멸절되었습니다.			
생각해보기					
1		이스라엘 총회의 베냐민 (1) 기브아 거민의 악행을 보고 받은 온 이스라엘은 총회로 모여 기브아 거민들을 응징할 것을 결의함 (2) 백성들은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넘겨 달라고 요구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함 (3) 이스라엘 연합군은 1.2차 전투에서 완패를 당하자 베엘에 올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제사를 드림 (4)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명이 죽고 600여명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에 숨음 (5)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감정과 숫자에 의존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핵심 단어		저물도록 금식하고 - 첫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스스로 항오를 벌였다'. 반면에 이번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즉 그들이 또다시 힘으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려고 했다면 힘을 쇠잔케 하는 금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성경에는 회개를 위해 금식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금식한 예도 여러 번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